

미국은 지금

FY3Q22 Earnings First Look: J.B.한트(JBH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US Equity Analyst 이원주 wonju.lee@kiwoom.com

| RA 황현정 hyeonjeong.hwang@kiwoom.com



▣ Earnings First Look

누적된 운송 초과 수요로 운송량, 운송단가 모두 증가하며 컨센서스 상회

- 한국시간 10월 19일 FY3Q22(9월 말)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0.04% 상승(20일 종가 기준, S&P500 대비 +0.7%p 아웃퍼폼)
- 매출액 38.4억 달러, YoY +22.1%, QoQ +0.0%, 컨센서스 대비 +0.9%
- 영업이익률 9.4%, YoY +0.7%p, QoQ +0.2%p, 컨센서스 대비 +0.1%p
- 희석 EPS 2.57달러, YoY +36.7%, QoQ +6.2%, 컨센서스 대비 +4.9%
- 매출액은 화물 운송량 증가로 운송당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YoY +22% 증가. 유류활증을 제외한 사업부별 운송단가는 intermodal(JBI) YoY +17%, Dedicated Contract Services(DCS) YoY +18% 증가했으며, 운송량은 각각 YoY +4%, +11% 증가. 영업이익률은 트럭 드라이버와 유지보수 인력 등 전문 인력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며 관련 비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운송단가, 운송량 증가에 따른 높은 매출액 성장으로 YoY +0.7%p 확대되며 컨센서스 상회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운송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인력난 문제는 일부 개선

- 가이던스는 미제시. 운송 관련해서는, 1) 전통적으로 물류량이 급증하는 4분기 앞서 예상보다 운송량이 저조하다며 수요 Peak-out 가능성을 시사. CEO는 실적 발표에서 동사는 여전히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성수기는 기준과 다르게 수요가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발언하며 광범위한 매크로 우려 속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 운송 증가 사업부인 Integrated Capacity Solutions(ICS)의 3분기 거래량은 YoY -8% 감소했으며, DCS 잔여 수주도 높이 유지되고 있지만, 수요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음 2) 인력난 문제는 일부 개선됐지만, 지난 2년간 급증한 운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운송장비 조달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관련해서 유지보수와 운송장비 교체 비용 부담은 크다고 설명

FY22 3Q ('22.07.01~09.30)

구분 (백만 USD)	FY22 3Q 발표치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컨센서스	차이	FY3Q21	성장률	FY2Q22	성장률
매출액	3,838	3,805	0.9%	3,145	22.1%	3,838	0.0%
영업이익률(%)	9.4%	9.4%	+0.1%p	8.7%	+0.7%p	9.2%	+0.2%p
순이익	269	260	3.5%	200	34.8%	255	5.5%
EPS(USD)	2.57	2.45	4.9%	1.88	36.7%	2.42	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블룸버그 기준, GAAP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